

우량정액 지원으로 한우 경쟁력 ↑

임실군, 2015년부터 전액 군비 지원... 유전 형질 상향 평준화로 농가 고수익 견인

임실군이 한우 산업의 근간인 가축 개량 정책을 11년째 지속 추진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 도입한 '한우 1군 우량정액 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며, 농가 부담 없이 우수 유전자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농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량효과를 극대화하는 임실군만의 차별화된 축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축 개량은 유전적 특성을 개선해 우수한 형질을 축적하는 장기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수 세대(10년 이상)가 소요되는 분야다.

군은 이러한 가축 개량의 특성을 고려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고품질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넘게 우수 씨소스 유전자를 공급하는 '우량정액 지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유전능력이 검증된 최상위 '1군 정액'은 확보가 어렵고 가격 부담이 크지만, 군은 농가 부담을 0%로 낮춰 누구나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할



임실군이 한우 산업의 근간인 가축 개량 정책을 11년째 지속 추진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는 관내 한우의 유전적 형질을 상향 평준화시켰으며, 우량정액을 통해 태어난 개체들은 일반우 대비 빠른 발육 속도와 높은 사료 효율을 보여 사육 기간 단축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사업의 결실은 축산물 등급 판정 현장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전적 형질 개선을 통해 한우의 증체량이 늘고 1++ 등급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임실 한우는 시장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경락가 형성으로 이어지며 농가 실질 소득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대규모 통합 브랜드가 없더라도 개별 농가가 생산한 한우 한 마리 한 마리가 시장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으며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실리 중심'의 개량 행정'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군의 '전액 군비 지원'은 농가의 생산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해 주는 효과 정책으로 꼽힌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체류형 관광 혜택 확대

4월 '여행가는 달' 맞아 관광객시 이용료 감면·숙박 할인 등 진행

남원시가 4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개인 및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되며, 시는 실질적인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체감형 혜택'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먼저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관광택시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주요 관광지인 피오리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대상 코레일 자유여행상품 이용객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며,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상품으로 남원을 방문하면 철도 이용료 전액을 쿠폰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사실상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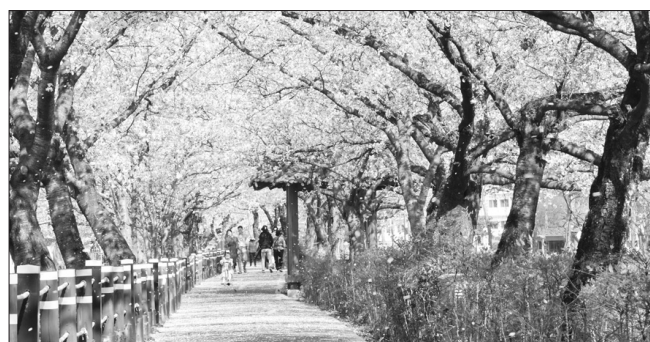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남원 디지털관광주인공' 신규 가입자에게는 남원 특산품을 증정해 방문객의 직



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숙박 지원책도 강화해 '2026 대한민국 숙박제일페스타(불편)'와 연계해 아늑자, 여기어때 등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등록된 관내 숙박업체 70여 곳이 합인 프로모션에 참여, 이를 통해 관광객이 남원에 편안하게 머물며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 자유여행객과 소규모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숙박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 구조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 봄 축제인 '제23회 옥천골 벚꽃축제'가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의 방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 성황리 개최

공연·체험 프로그램 다채

순창군의 봄 축제인 '제23회 옥천골 벚꽃축제'가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의 방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순창읍 경천면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만개한 벚꽃과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행사 기간 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정비된 경관이 더해지면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축제 기간 동안 개회식과 불꽃놀이를 비롯해 군민노래자랑, 읍·면 댄스페스티벌, 지역가수 공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공연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맨손 장어잡기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며 축제 열기를 더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룬 경천면 일대는 공연과 체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순창의 대표 볼거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농업기계 사고 대응 교육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해 남원소방서 소속 대원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사고 시 긴급조치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농업기계의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농업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운기, 관리기, 잔가지 파쇄기, 풍 탈곡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기계별 구

조 및 작동 원리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긴급 상황 시 안전장치 작동 방법 등이다. 특히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실제 기계를 활용한 시연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대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는 교육을 통해 복잡한 기계 구조와 지형적 특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추진

순창군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강화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점검에 나선다.

군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해 농업인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형상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군은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708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토양 시료 채취와 정밀 분석을 통해 비료 사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교육지원청,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소개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최근, 임실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함께하는 교육가족, 학부모 참여 활동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2025년도 학부모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도 학부모 관련 사업을 홍보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안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학부모커뮤니티, 교육가족합창단 등 임실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주요 학부모 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운영 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2025년에는 학교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협의회 운영, 학부모커뮤니티 체험 프로그램, 교육가족합창단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6년에도 각 협의의 정기회 운영,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합창단 모집 및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전홍영 기자

임실군,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신청 접수

임실군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가족 동반 이동 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생산 6~11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다자녀 가구에 차량 구입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임실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200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으로 당해연도 내 구매계약 및 출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또 국내 공장에서 생산·제작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63-640-3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